

손보사 경영상태 개선에 일조



강 원 희
(한국화보협회 이사)

1. 화보협회 20년의 발자취

가. 화보협회의 설립 배경

20년 전인 1973년에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탄생되었다. 따라서 그 출범은 법이라는 타율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법이 제정된 동기는 대연각의 대화와 시민회관의 대화로 발생한 많은 인명 피해를 계기로 방재 기술의 향상과 손해 보상 능력의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발상에 있었다.

나. 화재 위험 관리 체계의 확립

화보협회는 발족후에 그 주요 사업을 화재 위험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화재 위험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두었었다.

(1) 안전점검

그 첫번째가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다. 화협 출범전에도 각 손보사나 재보사에 이와같은 기능이 있기는 했으나 지극히 초보적인 것이었고 기술면에서도 뒤떨어지는 것이었다.

화보협회에서는 방재 기술을 고도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공과대학 출신의 위험 관리 요원을 확보하고, 7대 도시의 특수건물 및 시설과 방위 산업 건물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기타 지역의 대단위 공장, 대형 건물 등에 대해서도 정부기관 또는 손보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의 감소에 힘써 왔다.

이와 같은 화보협회의 안전 점검 효과는 첫째, 방재 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특수건물의 손해율이 비특수 건물 보다 크게 개선됨에 따라 화재 보험료가 수차에 걸쳐 인하되었다.

특히, 소화 설비의 개선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2) 방재시험연구소

화보협회에 부설된 방재시험연구소는 국무총리 지시 제5호(1978. 3. 22)와 감사원 및 내무부의 화보협회 감사 결과에 의한 발족이었으나 방재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

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재시험연구소의 설립 목적인 ① 방재 기술 향상에 공헌하고, ② 보험 산업의 과학화에 기여하며, ③ 방화 관련 제품의 품질 향상에 공헌한다는 명제가 달성되도록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직도 방재시험연구소의 시설은 확충단계에 있으나 그 기자재로도 각종 방화 제품의 성능 시험이나 건축 재료 등에 대한 인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음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업무

이 밖에 소화설비 개량 자금 대여 업무도 상당한 실적을 쌓아 왔으며, 소방력 증가를 위한 소방차, 소화기의 기증 사업도 방화 대책 사업의 하나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내실 경영의 기초 형성

금융기관 화재 보험에 대한 pool 업무 취급에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의 pool 업무까지 확대됨으로써 화재 보험 시장은 과당경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배분되는 수입보험료는 각 손보사의 경영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과거의 기여도는 작금 발생하고있는 pool 해체 이후의 과당 경쟁의 재연에서도 옛

볼 수 있다.

라. 가계성 보험 시장 확대의 촉매 역할 수행

1969년 4월부터 1977년 12월 까지 8년여 동안 균등하게 배분 하던 보험료를 1978년 1월부터 가계성 보험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함으로써 우리 나라 가계 보험 시장의 확대 기조를 세우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2. 화협의 장래 전망

가. 방재 전문 기관으로의 성장

보험 취급 업무가 대부분 손보사로 환원된 시점에서 화보협회를 방재 전문 기관으로 육성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몇 개 항목으로 개선해 보고자 한다.

이 방재 전문 기관으로의 발전 방안은 이미 화보협회에서 2001년까지는 ① 화재 시험 연구, ② 기초 시험 연구 확대, ③ 건축물 부재 시험 연구, ④ 안전 관계 제품 시험, ⑤ 방재 설비 시험 연구, ⑥ 방재 조사 연구, ⑦ 기술 정보 처리, ⑧ 소방용 기기 등 투자 운영, ⑨ 방재 기술 교육, ⑩ 설비별 시험 연구, ⑪ 기관·기계 등 비파괴 시험, ⑫ 전기 관계 시험, ⑬ 기술 인력의 확보 및 훈련으로 기술 축적을 기하는 수준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단계적 발전 방안을 확실히 실천해서 목표 연도에는 계획대로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 손보사를 비롯한 이용 대상업체의 의견이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때 보다 더 확실한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나. 지명도 고양책의 강구

선진국의 각종 위험 관리 기구는 미국의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나 영국의 Fire Protection Association (FPA) 등을 비롯해서 10여 개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UL은 각종 기기·장치·재료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검사를 주된 업무로 다루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6개의 기술 부문(도난·통보, 재해·위험물, 전기, 방화, 가열·공기조화·냉동, 해상부문)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인정 기준이 되는 UL의 안전 규격은 합계해서 약 380종에 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화보협회도 우선 한국내에서의 지명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수탁 시험 분야를 비롯해서 각종 인정 분야, 조사 연구 분야의 인적 구성과 기구, 조직, 기자의 보장 그리고 관장 업무를 현대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개선책으로 수입업무의 수행 능력을 공인받을 경우에 화보협회의 신뢰성은 더욱 높아갈 것이다.

다. 손보업계와의 유대 강화

화보협회의 출발이 손보사의 화재 보험 분야에서 시작된 것이니 만큼 손보사의 방재 업무에 대한 기술 제공을 더욱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방재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의 질을 높이고 소화 설비 할인을 비롯한 보험 요율의 합리화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기계 보험을 비롯한 기술 보험 분야에 대한 손해 조정, 보험 요율 등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한 업무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기계 보험 연맹과 같은 기능을 화협에 위탁한다면 손보사와의 유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3. 손보업계의 총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책 강구 필요

화보협회는 우리 나라 보험 산업의 지적 자산이라는 시각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제 20년이라는 청년기를 막 벗어나려는 화보협회의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손보업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보험 시장의 대외 개방에 수반한 경쟁력 강화에도 필연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